

기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③4 - 성여완선생 묘(成汝完先生 墓)

공민왕 4년 관직 떠나 은둔생활 '忠臣은 不事二君' 몸으로 보여준 忠節



최종규 포천명유회 회장



포천시 신북면 고일2리 산 30에 위치한 성여완선생 묘

· 지정번호: 향토유적 21호
· 소재지: 포천시 신북면 고일2리 산 30
· 규모: 높이 1.6m 지름 3m

공의 초명(初名)은 한생(漢生), 고려 충성왕 원년 1309 (高麗 忠宣王 元年) 봉상대부(奉常大夫)이던 군미(君美)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동북오씨(同福吳氏)로서 시 문명공 장(諡 文明公 臧)의 따님이다. 29세 되던 해(1336)에 문과에 급제했고 이때부터 벼슬길에 올라 첨의주서(僉議注書)를 거쳐 밀직사(密直司)가 되었고, 다음에 정당문학(政堂文學)에 이르렀다. 노래(老來)에도 검교(檢校)를 거쳐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장령부원군(昌寧府院君)이 된 고려 말(高麗末)에 이름난 충신이다. 민부상서(民部尙書)로 있던 공민왕(恭愍王)때 신돈(辛旽)이

죽음을 당하고 그 일파(一派)라는 죄목으로 한 때 귀양살이를 하기도 했다. 장령부원군(昌寧府院君)이 된 것은 우왕(禔王)때 일이고, 공양왕(恭讓王) 4년(1392) 정몽주(鄭夢周)가 선죽교에서 죽음을 당하자 이때부터 고려의 국운이 쇠퇴했음을 느끼고 관직을 떠나 조용히 은둔생활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큰 아들 석린(石麟)과 둘째 아들 석용(石溶), 그리고 셋째 아들 석인(石人)이 모두 등과해서 요직(要職)에 있던 때인지라 온 가족이 모두 관직에서 물러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비록 군주가 바뀌고 고려가 종막(終幕)을 고하는 대전환기(大轉換期)에 접어들면서 수도가 서울로 옮겨지는 바람에 아들들과 더불어 남하해서 산수가 수려한 이곳 승지(勝地) 포천

을 택하게 되었다. 성여완의 초명(初名)은 한생(漢生)이었는데 뒤에 여완(汝完)으로 고쳤고 자호(自號)를 흠헌(欽軒)으로 했는데 뒤에 포천시 신북면 왕방산하로 이사를 온 뒤에는 왕방거사로 자처했다. 한 번은 태조 이성계가 경희루에서 큰잔치를 베풀고 초청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평복인 흰 옷을 입고 참석해서 충신(忠臣)은 불사이군(不事二君)이라는 충절(忠節)을 과시하기도 했다.

태조6년(1397) 89세에 졸하니 나라에서는 쌀과 콩을 백석이나 하사해서 장사를 치르도록 했다. 묘는 거주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데 당시 상황을 말해주듯 고분에 고석(高石)들이 5백년이란 긴 세월을 수호신처럼 응시하고 있다. 뒤에 아들 3형제는 모두 큰 벼

슬을 해서 석린(號 號 錫谷)은 영의정이 되고, 석용(號 錫谷)은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이 되고, 석인(號 錫谷)은 예조판서(禮曹判書)를 지냈으며, 이 3형제는 각각 창령성씨(昌寧成氏)의 파조(派祖)가 되어 옥곡공파(獨谷公派), 회곡공파(檜谷公派), 상곡공파(桑谷公派)로 나누어졌고 이 3파를 일컬어 삼곡파(三谷派)라고 부르게 되었다.

특히 회곡공파에서는 성삼문(成三問)같은 훌륭한 충신이 나왔으니 이 분이 바로 석용의 증손이며 상공파에서는 연산조(燕山朝)에 우상을 지낸 성봉조(成奉祖)가 우인의 손자이며, 증손 중에는 성준(成俊)이 영의정(領議政)을 지냈고, 현손(玄孫) 중 세세창(威世昌)은 좌상(左相)을 지냈으며, 유명한 대학자 성우계(成牛溪)도 6대손이 된다.

교육에세이 ⑥

좋은 친구

조대행
충남고령교육 교장



'친구'란 여러서는 같이 놀아 주고, 청소년기에는 서로의 고민을 의논하는 상대이며, 청년기에는 사상과 이념을 토론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장년기가 되어서는 가족이나 사회생활과 같은, 인생에 대해 깊이 있게 대화 할 수 있는 상대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평생에 있어서 친구가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가를 단적으로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좋지 못한 친구를 사귀었을 경우에는, 그 영향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나 말치, 행동이 나빠 질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생활태도 전반에 나쁜 영향을 받아 돌아질 수 없는 탈선의 길로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구를 잘 사귀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한평생 살아 가는데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가족과 같이 살고, 이웃과 같이 살며, 사회 속에서 서로 돕고, 도움을 받아 가면서, 또한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 상호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친구이며, 말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의논하는 대상도 친구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친구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친구가 얼마나 중

요한가를 단적으로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좋지 못한 친구를 사귀었을 경우에는, 그 영향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나 말치, 행동이 나빠 질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생활태도 전반에 나쁜 영향을 받아 돌아질 수 없는 탈선의 길로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구를 잘 사귀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곁에 있을 때는 충고할 수 있고, 없을 때는 칭찬하고, 어려울 때는 도와 줄 수 있는 친구, 바로 이런 사람이 좋은 친구

가 아닐까요? 사실 좋은 친구를 사귀기도 어렵지만 좋은 친구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겠고, 좋은 친구가 되려면 먼저 베풀고 도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Socrates)는 "우정 관계는 서서히 하라. 그러나 친구가 되면 확고하고 성실하게 계속하라. 우정을 지키는 최선의 길은 서로 아무 것도 빛지지 않는 것이다. 마음의 빛이나 물질의 빛도 가지지 않아야 좋은 친구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서로 가까우수록 예의를 지키며, 부담 없는 사람과 감사의 존경심을 상대에게 보낼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됩시다. 그리고 좋은 친구를 사귀도록 노력합시다. 조선시대의 '오성과 한음'처럼 아름답고 순고한 우정을 같이 간직할, 그런 훌륭하고 믿음직한 친구를 사귀도록 노력합시다.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훨씬 크다



신동현 차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

우리나라는 6.25사변을 겪고 완전히 폐쇄된 세계 최빈국에서 단 30년 동안 기초적 의식주를 완전히 해결하고 사회복지제도 확대를 통해 삶의 질을 높하게 됐다. 이는 근면한 국민성과 우리민족의 교육열 등 우수한 두뇌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다. 필자는 사회복지서비스 중 의료복지지원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에서 20여년 동안 일하며 우리국민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정도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느낌을 받았다.

들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조세 저항이 없었었다. "공산당이냐?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이지 왜 고지서를 내보내느냐? 이 도둑놈들이" 이런 말을 직원들은 매일 수도 없이 듣고 신체적 협박을 받는 것도 대수는 아니었다. 참으로 사회보장원리를 전파하는데 너무 힘든 나날들이었다.

나 나는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지불보다 더 부담해 정말 병들고 힘든 사람을 위해 급여를 올려야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감을 받지 않겠다고 하셨다. 그분의 건강보험료는 경감이 없으면 월 30만 원이나 된다. 20여년 가까이 국민건강보험협회를 보면서 위 두분의 말씀은 듣기 아주 희귀한 경우다. 그래서 더욱 이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싶다.

그때 나에게 힘을 주고 굳건히 일할 수 있게 해준 분이 계산사, 강두문씨로 이름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그분은 양계농장을 하시는데 상당히 많은 의료보험료를 불평 없이 납부하셔서 나는 대인 홍보 중 그분을 받고 의료보험 제도를 잘 이해해 주신 것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시했다. 그때 그 분이 말씀하시길 "나는 양계농장을 하여 주변사람들에게 악취와 파리 모기 등 해충 발생으로 피해를 주는데 의료보험제도와 같은 제도가 생겨 내가 조금이나마 보탬을 더내 내 이웃과 내 농장의 계란을 사준 분들께 감사함을 표시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씀하셨다. 최근 공단 사무실에 15년 전에 이장을 보시고 의료보험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던 송우리 김중현씨께서 "왜 공단에서 나를 놓어민이라고 일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50%를 감감하는

그때 나에게 힘을 주고 굳건히 일할 수 있게 해준 분이 계산사, 강두문씨로 이름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그분은 양계농장을 하시는데 상당히 많은 의료보험료를 불평 없이 납부하셔서 나는 대인 홍보 중 그분을 받고 의료보험 제도를 잘 이해해 주신 것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시했다. 그때 그 분이 말씀하시길 "나는 양계농장을 하여 주변사람들에게 악취와 파리 모기 등 해충 발생으로 피해를 주는데 의료보험제도와 같은 제도가 생겨 내가 조금이나마 보탬을 더내 내 이웃과 내 농장의 계란을 사준 분들께 감사함을 표시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씀하셨다. 최근 공단 사무실에 15년 전에 이장을 보시고 의료보험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던 송우리 김중현씨께서 "왜 공단에서 나를 놓어민이라고 일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50%를 감감하는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의 강한 조세저항을 무릎 쓰고 6세미만 입원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암 등 중증환자 본인부담금을 10%로 인하고 고가장비(MRI, PET 등), 입원환자 식대 등을 급여대상으로 전환하며 보험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누구나 마음놓고 질병을 치유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진정한 의료보장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도 사회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 주위에 내가 설 수 있게 한 이웃을 돌아보고 양보하며 공존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궁극적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고 즐겨워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받는 기쁨 보다 주는 기쁨이 훨씬 크고 행복한 것이다.

교육칼럼

"작은 일부터 정성스럽게 운영하는 학교가 되립니다"



이진구
외북초등학교 교장

6월5일 마칩 월요일 애국조화라 6월9일 독일 뮌헨 알리안츠아레나에서 개막하는 18회 월드컵의 유래와 역사에 관한 이야기와 지난 대회에 4강까지 간 전적과 붉은 악마의 응원, 세계 프로구단에서 활동하는 선수들과 이드 보카드라는 명감독이 있기에 이번 18회 월드컵도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는 희망과 꿈을 갖고 독일까지 가지 못해도 화면을 보고 열심히 응원하자고 하였으며,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써 전쟁터

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군인, 경찰, 의병들인 호국영령들과 나라의 독립을 위해 산화한 순국선열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기를 달고 묵념을 하며, 경건한 자세로 하루를 보내며, 우리 주위에 원호가족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우리들의 보답이며 보은에 감사하는 도리라 하였다.

6월12일 애국조화시 지난 현충일 조기를 단 학생수를 조사해 보았더니 소수의 아동들만 손을 들어 애국조화가 끝난 후 자세히 조사를 하여보았더니 31.1%의 아동만이 조기를 달았으며, 그것도 아동들이 직접 국기를 단 것은 10.5%에 불과하며 63.9%의 아동들은 국기를 게양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국기

를 게양하지 않은 이유는 귀찮고, 있어서, 도움이 안 되어서며, 국기가 바랐거나 없어서 게양하지 못한 가정도 48.1%가 되었다. 묵념을 한 아동은 7.5%나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직원 공동 사택에도 국기를 게양하지 않았으니 아동들의 집에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절반에 가까운 태극기 없는 가정을 위해서는 학교, 민사무소,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마을대표들이 모여 태극기를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고, 교직원 공동사택에도 국기게양대를 만들어 슬선수범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학교장 공모제나 교원 성과급 문제, 사립학교법 무효화 투쟁으로 교원단체별로 제 바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면 학교에서는 배가 갈 방향을 잃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신세가 지금의 학교 실정이다. 허나 어느 누가 무어라해도 자신의 이념과 다르다고 피해야고, 방관하고, 비난하기전 그래도 교육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이들의 표정으로 그 아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우리 선생님이 설계된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교육혁신이라고 일거리를 벌리고 아동들에게 도움도 안 되는 사업을 벌려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학교교육과정 속에 내포된 국기 달기와 같은 작은 일부터 정성스럽고 세밀하게 운영하는 학교가 되고 싶습니다.

기기에 여념이 없다면 학교에서는 배가 갈 방향을 잃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신세가 지금의 학교 실정이다. 허나 어느 누가 무어라해도 자신의 이념과 다르다고 피해야고, 방관하고, 비난하기전 그래도 교육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이들의 표정으로 그 아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우리 선생님이 설계된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교육혁신이라고 일거리를 벌리고 아동들에게 도움도 안 되는 사업을 벌려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학교교육과정 속에 내포된 국기 달기와 같은 작은 일부터 정성스럽고 세밀하게 운영하는 학교가 되고 싶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으로 고객제일주의를 추구하는 전기전문공사업체

"전기안전은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특급 전기점검 기술자 다수 확보

최첨단 전기점검 측정장비 보유

신속하고 철저한 서비스 보장



대표이사 안병호

전기신규신청과 전기 신·증설 공사 및 각종 대관업무 상담은 당사로 문의하세요



변압기 부하 점검



변압기 절연유 실험